

〈논평〉

## 최근 중국의 교육정책 관련 언론 보도 현황과 특징 - 2022년 하반기 중국 언론매체의 기사를 중심으로

우 성 민 \*

〈목차〉

- I. 머리말
- II. 사상정치 과목의 강화
- III. 글로벌 교육의 균형발전과 중국특색의 세계 일류대학 건설 추진
- IV. 맺음말

### I. 머리말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최근 시행한 유행어 조사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2022년도에 가장 중요한 어휘로 선정된 단어는 '중국공산당의 제20기 전국 대표대회'였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중국 언론 보도가 '중국공산당의 제20기 전국 대표대회'에 집중된 상황과 맞닿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의 공식화에 주목한 것을 의미한다.

공교롭게도 중국공산당의 제20기 전국 대표대회 폐막 이후의 대부분 주요 언론 보도의 시작은 '중국공산당의 제20기 전국 대표대회에서 시진

\* 동북아역사재단 국제관계와 역사대화연구소 연구위원

핑 주석이' 마치 관용구처럼 나온다. 그렇다면 당시 시진핑 주석이 중국공산당 제20기 전국 대표대회의 업무보고에서 다룬 주요 발전전략은 중국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 정부는 2035년 교육강국을 목표로 수립한 중장기 전략계획인 『중국교육 현대화 2035』를 발표한 이래 중국 교육은 당의 큰 계획이자 국가의 큰 계획이며 고등교육을 잘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상술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전국 대표대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교육에 대해 무엇을 언급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는 바로 앞으로 중국의 교육정책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는 2022년 10월 16~22일에 개최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전국 대표대회 주요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2022년 하반기 동안 보도한 중국 언론기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중국의 '교육 정책'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해 보면 크게 '사상정치 과목의 전면적 추진', '글로벌 교육의 균형발전과 중국특색의 세계 일류대학 건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교육', '교육의 디지털화'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주제별로 나누어 내용과 특징을 소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중국이 시행할 교육정책과 그 가운데 한중 현안 관련 문제점 및 한중 관계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 II. 사상정치 과목의 강화

2022년도 하반기 중국의 언론 보도 가운데 교육 정책 관련 주요 내용으로 상술한 '사상정치 과목의 전면적 추진'을 위시로 '사사(四史)'의 교육

에서 역사적 자신감을 견지' 등 27회 이상 확인되고 있다.<sup>1)</sup> 이 가운데, 교육부에서 배포한 '세계 일류대학과 일류학과 건설의 추진강화' 관련 기사와 '교육의 디지털화 전환' 관련 보도 등 2022년도 상반기의 주요 키워드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고에서 다룬 '사상정치 과목의 강화'는 전년도에 비해 좀더 빈번하게 확인되는 내용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6월 30일 중국 인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사상정치 과목을 잘 처리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큰 관심사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과 국가발전과정에 입각하여 중국공산당이 왜 능히 할 수 있는지, 마르크스주의가 왜 행해지는지,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왜 좋은지 깊이 이해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이론의 힘으로 학생들을 설득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힘으로 학생들을 감동시키고, '소리 없이 축축하게 하고, 마음을 건드리는' 교육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성에 호소하여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어 중국 교육부에서 대학교의 사상정치 과목개설을 강화하기 위한 「사상정치 강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방안」을 배포하였다. 전국 대학교에 사상정치 교학연구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천기지 건설 및 우수한 강의자원을 건립하고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구체적인 「업무방안」에서 첫째,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학부에 2학점, 전문대학은 1학점을 사상정치 과목으로 배정해야 하고, 둘째, 전국의 모든 대학교가 사상정치 교학연구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임이나 겸임교원의 진용을 갖추어야 하며, 셋째 이론연구와 교육연구의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넷

1) 「교육부 등 10개 부문: '사상정치 강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자(教育部等十部門: 全面推進“大思政課”)」,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 2022.8.19; '사사(四史)'의 교육에서 역사적 자신감을 견지하자(在“四史”教育中堅定歷史自信)」, 『중국사회과학망(中國社會科學網)』 2022.9.26. 이 외, 2022.6.30.~2022.12.31.까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중국교육보(中國教育報), 광명일보(光明日報)등에서 관련기사를 검색하였다.

째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시(江西), 산시(陝西) 등지에 시범지역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시진핑 주석 집권 3기 시작 전에 '시진핑 사상'에 대한 사상 교육 강화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9월 초에도 중국 인민일보에서 1일, 6일 각각 '청소년의 특징을 이해하여 사상정치 과목을 잘 가르치자', '대학교, 중등학교, 초등학교 사상정치 과목의 일체화 건설을 추진하자'라는 주제로 연이어 발표하여 보도의 빈도수를 높였다.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의식적으로 고양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소양과 정치적 정체성을 제고하여 국가, 사회 및 삶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형성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명감과 책임을 강화하여 당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9월 6일 기사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인민대학교를 순시하면서 전국의 대학교, 중등학교, 초등학교는 사상정치 과목의 공동건설을 통해 사상정치 과목의 일체화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발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체계적인 사고로 대학교, 중등학교, 초등학교의 사상정치 과목의 일체화 건설추진을 통해 사상정치 과목의 내면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대학교, 중등학교, 초등학교의 사상정치 과목의 일체화 건설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각 단계별로 연관성, 통일성을 갖추어 유기적인 총체성을 강화해야 하고, 과목의 사상성과 이론성을 심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친화성과 목표성도 제고시켜야 하며, 각종 교육자원의 균형분배 및 전체적인 협력구조를 형성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9월 26일 중국사회과학망(中國社會科學網) 기사에서는 사상정치 과목의 구체적인 학습 내용과 연결하여 "사사(四史)의 교육에서 역사적 자신감을 견지하자"는 주제로 보도하였다. 중국공산당 상하이시 당교(黨校)에서 주최한 '신시대 사사(四史) 교육심화를 위한 중대한 이론과 현실문제

연구'라는 학술대회에서 다룬 사사(四史)의 사상적 자각과 행동적 자각 등의 내용 관련 토론을 소개한 것이다.

당사교육(黨史教育)이 중심이 되는 사사교육(四史教育)은 역사, 현실, 미래를 소통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자 기본적인 방법이 되고 있고, 대학교의 사상정치 교과목에서 청년 지식인들의 정확한 역사입장 수립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인 자신감을 견지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정과(思政課)라고도 불리는 정치과목은 중국 교육부에서 지정한 중국 대학의 모든 학생이 수강해야 할 필수 과목이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과 중국 공산당 역대 지도자들의 지도 이념 및 당의 중요한 의제 등에 대해 학습하는데, 특히 대학교 1학년 2학기에 중국근현대사강요(中國近現代史綱要)가 편성되어 있다.<sup>2)</sup>

사상정치 과목에서 유달리 '중국근현대사'를 강조하여 학습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사사(四史)'에 대한 학습을 동시에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사사(四史)'란 '중국공산당사', '신중국사(중화인민공화국 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를 지칭한다. 2021년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아 중국공산당 100년의 역사적 경험을 총결산하고 당원들이 '사사(四史)'를 교육해야 한다고 시진핑 주석이 여러 차례 요구한 것이다. '사사'에서 다루는 시기의 범위가 조금씩 다를 뿐, 사실상 모두 중국공산당이 주도해온 중국의 현대사를 의미한다. 환연하면 중국공산당이 이끌어 온 현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주문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집권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제20기 전국 대표대회 기간인 10월 19일에는 광명일보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시종일관 교육과 인재배양을 증시하여 당의 기본

2) 「중국 대학생의 필수이수과목은?」, 교수신문(<http://www.kyosu.net>), 2021.12.01

적인 정치임부로 지정하고 있는데, 중국공산당의 강력한 지도아래 기초교육의 전방위적이고 역사적이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결국 시진핑 주석 집권 3기를 시작하자 11월 10일 중국 교육부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의 사상정치 과목 강화방침에 따라 「신시대 초중등학교 사상정치 과목건설의 진일보 강화를 위한 의견」을 배포하였다. 이 「의견」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초중등학교 사상정치 과목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를 강화하여 초중등-대학교 사상정치 과목의 일체화 건설을 이루어야 하고, 2025년까지 ‘대학교 사상정치 과목’의 체계를 완비하고 평가제도도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중국공산당 지도자의 감독과 순찰을 강화하여 사상정치 과목의 시행상황 및 교육수준을 점검해야 함을 밝혔는데, 사실상 ‘시진핑 사상’ 등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다시 인민일보가 12월 7일 ‘마음과 정성으로 사상정치 과목을 잘 만들자’는 주제로 시진핑 주석이 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업무 보고에서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한다”고 밝혔음을 강조하였다. 문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확고한 신앙자이자 충실한 실천자가 되도록 유도한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에게 사상 정치 이론 수업을 시대에 더 가깝게 하고, 젊은 학생들이 듣고 갈등을 해소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진리의 맛’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한다고 요구한 점이다.

근래 중국공산당의 사회 통제와 민족주의적 응집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공산당 내에서도 시진핑 주석 한 사람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상정치 과목 강화’를 표방하며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세뇌와 사상무장을 넘어서 ‘진리’를 신앙하는 단계까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홍콩특구의 행정장관인 리자차

오(李家超)가 ‘2022년도 홍콩 애국주의 교육의 전문가 포럼’ 및 애국교육 지원센터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홍콩 학생들에게 국가의식과 민족의 동질감을 배양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애국주의 국민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교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일치단결하여 국가안전과 국민교육의 중요한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홍콩의 애국청년들을 위한 중요한 학습의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중국에서 지난해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한 이른 바 ‘백지시위’ 등 중국 인민들의 강한 반발과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교육정책의 산물일 것이다.

이상의 2022년 하반기 중국 언론 보도의 특징으로 ‘사상정치 과목의 강화’를 중국 내부 단결을 위한 대내적인 요소라고 본다면 다음 ‘글로벌 교육의 균형발전과 중국특색의 세계 일류대학 건설’의 강조는 대외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 Ⅲ. 글로벌 교육의 균형발전과 중국특색의 세계 일류대학 건설

2022년 7월 16일자 중국 인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유엔의 2030년 발전 의제는 포용과 공평을 확보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교육의 균형발전이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글로벌 교육의 균형발전을 공동으로 추진시켜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각국의 교육보급 현황은 예전에 비해 뚜렷한 진전을 이루고 있고 코로나의 유행국면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대면 디지털 교육

을 강화하면서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고는 있지만 지역과 국제적인 교육협력을 강화하여 디지털 기술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국제 교육협력의 잠재력을 더욱 진작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7월 17일 중국 인민망을 통해 ‘세계의 교육체제 재건에 공동으로 노력하자’라는 주제로 유네스코 교육차관보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중국이 1971년 유네스코의 합법적 의석을 회복한 이후 유네스코와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교육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유네스코 교육차관보는 중국이 유네스코에 자금, 경험, 이념 등 일련의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어 중국의 대국적 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중국교육국제교류협회가 유네스코 파트너로서 유엔 국제교육의 날 결의에 적극 호응해 중국의 교육 성과와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중국식 방안으로 기여하였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중국교육국제교류협회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 한국 등에서 스파이 활동 혐의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국 체제 선전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자학원이 그 전신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대학교의 현지 국제화 발전을 추진하자”라는 주제로 보도한 중국사회과학망(中國社會科學網) 8월 19일자 기사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의 고등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다루고 있다. 지역의 국제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의 고품질 고등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돕기 위해 대학은 이데올로기적 족쇄를 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다면적 주제 협력 및 국제 개발의 국경 간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2022년 8월 24일 중국 인민일보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세계 일류대학을 건설하여 사회주의의 계승자를 적극적으로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중국특색의 세계 일류대학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질적인 수준



향상과 내면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개혁과 혁신으로서만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중국공산당의 지도아래 '사상정치 교육' 중심의 업무 체계 개혁을 실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 본 '사상정치 교육'강화와 중국특색 사회주의 세계 일류대학의 건설이 중국 공산당의 지도아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 8월 28일 중국사회과학망의 '글로벌 관리체계의 변혁을 추진하여 책임감 있는 대국의 역할을 드러내자' 라는 기사에서도 중국은 글로벌 관리체계의 변혁을 위하여 책임감 있는 대국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대국관계의 원만한 처리를 통해 글로벌 관리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다원적이고 포용적인 글로벌 관리이념과 실천을 주도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어 발언권과 규칙 제정권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 고수, 기존체계에 대한 의존성, 서구의 발언권 주도 등이 현재 글로벌 관리체계의 변혁추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임을 지적한 점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글로벌 교육의 균형 발전과 중국특색의 세계 일류대학 건설에 대한 주장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를 견제하며 중국의 글로벌 주도권 고수하고자 하는 의도와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사회과학망은 '고등교육의 수준 높은 대외개방이 깊어 인식해야 할 5가지 차원' 이라는 주제로 교육부가 9월 20일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교육 및 국제협력 교류에 초점을 맞춘 '교육 10년' 시리즈 13차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내용을 소개하였다.<sup>3)</sup>

3) 본문은 지린대학교 2021년 국정교육 알짜과정 구축사업 '당대 중국 교육발전 경험과 개혁성과', 지린대학교 '시진핑 총서기 계열 중요강연정신 관철'철학사회과학연구전문사업 '시진핑 총서기 고등교육 계열 중요강연정신 연구' 연구성과【本文系吉林大學2021年國情教育精品課程建設項目“當代中國教育發展經驗與改革成果”】，

교육은 당의 큰 계획과 국가의 큰 계획이며 고등교육의 발전수준은 국가의 발전수준과 발전잠재력의 중요한 상징이며 고등교육을 잘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교육강국의 전략 건설을 위해 더욱 확고히 중국특색의 세계일류대학 건설의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고 반복한 뒤 중국의 양질의 교육자원의 국제 확대를 추진하며, 고등교육의 국제 발언권과 영향력을 높이고, 국제고등교육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과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더 많은 중국의 지혜로 기여하고 더 많은 중국의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중국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신중국 건국 73주년을 맞이하는 10월 1일에도 중국사회과학망은 ‘세계 일류대학 건설의 국제경험과 중국의 길’을 보도하여 중국 정부의 ‘세계 일류대학 건설’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 주석은 중국의 세계 일류 대학 건설은 선진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참고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 문화, 전통, 사회주의 현대화 실천에 뿌리를 두고 중국 특색을 반영한 건설 경로를 형성하여 중국의 고등교육 대국에서 고등교육 강국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혜를 강조하는 사상문화적 개념과 이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사회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발언을 거듭하였다.

여기서 최근 중국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글로벌 교육의 균형발전과 중국특색의 세계 일류대학 건설’이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도 연동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년에 국가 스마트 교육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출시되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중국

---

吉林大學“深入學習貫徹習近平總書記系列重要講話精神”哲學社會科學研究專項項目“習近平總書記關於高等教育系列重要講話精神研究”的研究成果】 참조.

은 중국 최대 규모의 IT기업 텐센트와 화동사범대학교, 중국과학원이 연합하여 전국 인공지능 교육현황 조사연구를 실시하였고 『2022년 인공지능교육청서』를 발표하였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혁명의 중요한 구동력으로 사람들의 생활, 일, 교육 학습 방식을 심대하게 변화시키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은 갈수록 교학 관리의 각 단계에 활용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커리큘럼은 점점 더 초·중·고교 단계의 중요한 교육 내용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소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10월 14일 중국교육보(中國教育報)의 ‘교육은 위대한 부흥의 기초를 닦는다’의 기사에서 디지털 변혁의 기선을 잡으면 교육 발전의 미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국가 교육 디지털화 전략 행동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디지털 자원의 정적 잠재력을 교육 개혁의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하면 교육 현대화를 강력하게 이끌며, 중국 특색과 중국 패러다임의 교육 디지털화의 길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중국이 기술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투자로 해석된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전국 대표대회 기간인 10월 24일에는 광명일보를 통해 ‘디지털 문명을 추진하여 고등교육 방면에서 중국의 지혜로 공헌해야 한다’ 보도하였다. 과학혁명과 교육혁명의 전환점인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문명의 새로운 형태가 출현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디지털 문명의 발전을 통해 인류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자고 강조하였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VR/AR, 5G/6G, 인터넷 영상매체, 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통해 고등교육의 새로운 시공(時空)을 창조해야 하고, 디지털 관리체계의 개선, 디지털 혁신의 추진, 디지털 활력의 진작 등을 해 고등교육의 선행자(先行者)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문명시대에 인류운명 공동체의 구축, 인류공동의 가치 등을 선양하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사명과 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고등교육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

설한 점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전국 대표대회 이후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제20기 전국 대표대회에서 강조한 교육개혁의 발전에 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었다. 10월 27일 중국교육보(中國教育報)의 “교육은 중국식 현대화의 전략적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기사에서 전면적인 사회주의의 현대화 강국건설에서 교육은 기초적이고도 전략적인 버팀목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제20기 전국 대표대회에서 강조한 교육개혁의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조력하는 일로써, 모든 교육업무 종사자가 당면한 중대한 이론이자 실천적인 과제의 하나임을 피력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업무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전면적인 지도와 견인을 반드시 지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실제상황에 맞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교육의 발전방향도 반드시 견지해야 하고, 모든 국민의 공동부유, 국민중심의 사상을 통해 국민이 중심이 되는 수준 높은 교육체계를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세계평화와 세계발전을 추구하는 길인 인류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함을 밝히면서 마무리 하였다.

10월 28일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중국특색과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현대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헌하자’라는 기사에서도 시 주석이 중국공산당 제20기 전국 대표대회에서 발언한 사회주의 후계자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중국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요한시기에 있으며, 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며 교사의 중요성 또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를 위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관한 ‘시진핑 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이 변형하면 국가가 변형한다고 설명하고 강한 교육은 곧 강한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따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 집권 3기의 시작을 알리자마자 11월 17일 광명일보의 ‘세

계 일류대학 건설의 국제경험' 기사를 통해 중국 청화대학 교육연구위원장은 “13차 5개년 계획 핵심 과제로서 베이징시 대학 ‘쌍일류’ 학과의 투입과 산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제화는 세계 일류 대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 국제적 영향력, 국제학술연구 등이 세계 일류 대학의 핵심 특징이라고 하면서 국제화 수준을 높여 세계 일류 대학 건설을 촉진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각 국은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고 일류대학, 일류학과, 일류학술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월 22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는 제3회 국제 중국어 교육발전 싱크탱크 학술포럼 개최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국제 중국어 교육의 강사 발전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교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국제 중국어 교육의 수준 높은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체계의 구조를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국제 중국어 교육의 기회와 도전에도 적절히 대처해야 하고, 국제 중국어 교육에서 과학기술의 응용을 중시하여 해당학과와 교육사업의 공동발전을 추진해야 함과 동시에, 국제 중국어 교육의 학술 공동체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상술한 일류학술공동체 건설 추진과 같이 국제 중국어 교육의 학술 공동체 구축도 교육이 당과 국가의 전략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인민일보가 12월 5일 ‘교육의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주제로 시진핑 주석이 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업무 보고에서 다른 교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전국민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형 사회와 학습형 대국을 건설하자고 발언을 내용을 보도하였다. 여기서도 신시대의 새로운 여정에서 교육개혁과 교육의 현대화가 학습형 대국건설을 위해 공헌할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12월 8일, 쑨춘란(孫春蘭) 국무원 부총리가 베이징에서 개최한 국제 중국어 교육회의에

발언한 기조연설 가운데 지난 2022년 반복적으로 언론에서 거둬하였던 글로벌 교육의 균형발전과 중국특색의 세계 일류대학 건설' 배경과 동일한 '국제 중국어교육의 수준 높은 발전 추진' 배경이 드러난다.

쑨춘란은 기조연설에서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각국에서 중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왕성해지고 있고, 전 세계 180여 개국이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81개국이 중국어를 국민 교육 체계에 포함시켜 중국어 과정을 개설한 각종 학교 및 훈련 기관 8만여 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 3000만 명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국제 중국어 교육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중외 인문 교류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하였다. 쑨춘란은 또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보고 내용을 근거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하며 세계 발전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국제 중국어 교육을 위한 더 넓은 무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각국 정부, 학교, 기업, 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중국어 교육 표준을 보급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양질의 국제 중국어 교육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각국 인민의 중국어 학습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상술한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정부가 세계 각국에서 공자학원을 둘러싸고 발생한 논쟁을 의식하여 공자학원 운영 주체를 '국가한판'에서 비영리 기구인 '중국국제중문교육기금회'로 교체하였다. 문제는 중국 국제중문교육기금회가 위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인류운명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주도권을 갖고 대국의 역할을 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배경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 경제, 과학기술과 군사력에 주로 치중했던 미국과는 달리, 중국이 문화강국이라는 추가적인 목표를 설정하

고 있는 가운데, 세계와의 언어·문화 교류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역설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 IV. 맺음말

지난 2022년도 하반기 중국의 주요 언론 보도 가운데 중국 교육 정책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면 핵심 키워드로 '사상정치 과목의 전면적 추진', '글로벌 교육의 균형발전과 중국특색의 세계 일류대학 건설'이 거듭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일류대학 건설'의 경우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이미 주장하였고, '사상정치 과목의 전면적 추진'도 2022년 이전부터 중국 교육부에서 강조하였지만 2022년 하반기에 관련 보도 기사가 급증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 3연임을 결정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전국 대표대회를 통해 중국 교육부는 중국공산당의 초중등학교 사상정치 과목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를 강화하여 대학교 사상정치 과목의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는 사실상 중국 초등학생부터 중등,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사상 통제차원에서 중국공산당 집권의 당위성을 주입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시진핑 사상'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사상정치 과목의 전면적 추진이 중국 교육정책 관련 대내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글로벌 교육의 균형발전과 중국특색의 세계 일류대학 건설, 교육의 디지털 전환 추진 등은 대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망 보도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 고수, 서구의 발언

권 주도'에 대한 중국측의 대응 전략이라 해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를 견제하며 중국의 글로벌 주도권 고수하고자 하는 의도와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공지능 AI 시대를 표방하는 오늘날 중국이 AI 선도자로 자처 하면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한 시점에서 국가 스마트 교육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출시되었고 중국 최대 규모의 IT 기업 텐센트와 화동사범대학교, 중국과학원이 연합하여 전국 인공지능 교육현황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 인공지능교육청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최근 중국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글로벌 교육의 균형발전과 중국특색의 세계 일류대학 건설'이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연동되고 있다. 중국이 2050년까지 과학,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쏟아 부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언론에서도 AI 기반 기술은 중국의 활동반경을 훨씬 넓히고 있으며 중국이 AI 연구 능력에서 세계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한국이 AI 분야에서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시점에서 중국 교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실상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요구된다.<sup>4)</sup>

또한 본고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국내학계에서 파악한 '동북공정'의 입안과제 중 하나였던 『중국고대번속제도연구』와 연결선상에 있는 『중국고대의 속국(屬國)과 조공연구』가 2022년 10월에 출판되었다. 지난 10월 20일 중국변강사지연구(中國邊疆史地研究) 관련 보도에 의하면 중국고대의 속국(屬國)과 조공은 밀접한 관계성을 지닌 두 가지의 개념으로, 중국 강역사(疆域史), 중화민족 공동체의 형성사, 중국고대 대외관계사, 동아시아 지역사 등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4) "이러다 중국의 AI 속국 된다" - 두 번째 이야기,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25322>), 2019.03.28.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교육이 중앙민족대학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교육의 본질은 가치관 교육이고 그 핵심은 동질감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이념의 구축인데, 중앙 민족대학교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교육의 주요 정치현장, 문화영역, 심리 공간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교육의 가치방향과 실천진로를 수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의 현장이라고 강조하였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견고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교육건인, 교육현장, 교육모델이 유기적으로 종합이 되도록 구축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의 실현추진을 위한 견실한 역량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천하체계(天下體系), 조공체제(朝貢體制), 화이(夏夷)의 차별이 존재했던 봉건적인 민족 공동체에서 현대적인 중화민족 공동체로 전환되었다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며 시진핑 신시대의 중화민족 공동체의 구축을 국가민족과 동질성의 구축 등과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동북공정을 공식적으로 추진한 중국변강연구소에서 중국고대의 속국 및 조공제도의 형태와 특징에 대해 다각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점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교육의 강화는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맞닿아 있는바, 이 역시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요구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양회가 지난 3월 11일 폐막하였는데 올해의 국정 운영 방향아래 추진될 중국의 교육정책에서도 '시진핑 사상'을 핵심으로 한 '사상정치 과목의 강화', '글로벌 교육의 균형발전과 중국특색의 세계 일류대학 건설', 교육의 디지털 전환 추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교육 등이 거듭 강조되면서, 중국의 자민족 중심주의, 패권주의 역사인식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